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이나 처음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친교실로 가서
서 목사님,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교회소식

1. **2026년 장애인 주일(Disability Sunday)** 오늘은 우리교회가 가입한 BCMD 주총회가 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격려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예배는 합동예배(combined service)로 드립니다.
2. **2026년 교회표어(2026 Vision Statement)** “사막에 강을 내리라!”(이사야 43:19), “I will make rivers in the desert!” (Isaiah 43:19) — 사막에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봄으로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주의 길과 생명의 강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3. **2026 선교(2026 Mission)**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체코 프라하): 7/14(화)-7/21(화), 소경숙, 소병진, 차경상
북미원주민 선교: 7/19(주일)-7/25(토), 한명우, 한중희, 오명현, 최성준, 최자경, 정이안, 정이래, 이웅기, 이바울, Centria Worthy, Xavier Worthy, Leroy Worthy, 김화순, 공명숙
우리 모든 성도들 보내는 선교사로서 중보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선교회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선교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실 때 “선교헌금”이라고 꼭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2026 한국 보육원아동 선교(2026 Mission to Children in Korean Orphanages)-임지혜 목사**
7/20~7/29까지 미국 NLF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한국을 방문해 특수학교 아이들과 교도소를 중심으로 음악 선교를 합니다. 그 기간중 특별히 23~26일까지는 한국 보육원 아동들과 함께 음악 캠프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미국에서 선교를 가는 유스아이들과 한국의 보육원 아이들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수요저녁예배(Wednesday Evening Worship)** 수요저녁예배가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시편 30편 말씀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6. **EM/유쓰 기도요청(Pray for EM and Youth Ministry)** EM과 유쓰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5주시기를 바랍니다.
7. **심방요청(Request for Pastor's Visit)** 목사님의 심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부 심방팀에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송명희 집사 301-613-0337)
8. **지난 주일 예배통계(Last Week's Statistics):**
7/5 주일예배 출석합계: 명(1부, 2부, EM, 유아) 헌금합계:

◆ 교우동정 및 중보기도 —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한명우 집사: 심장관막 역류증 회복
2. 오명현 권사: 건강 회복
3. 강무줄 권사: 건강과 평안
4. 박정숙 권사: 허리와 다리 통증 회복
5. 이교은: 치유의 기적
6. 박성아 집사: 엘라베마 체류(5/6 ~ 8월말), 리엘의 건강한 성장
7. 제시카: 손과 목과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



메릴랜드

소망교회

KOREAN HOPE CHURCH OF MARYLAND

2026년 7월 12일

“사막에 강을 내리라!”(이사야 43:19)

“I will make rivers in the desert!” (Isaiah 43:19)

† 심과 나눔이 있는 교회
† 사도행전적인 교회
† 믿음 성장이 있는 교회
† 교회개혁적인 교회

교 회: 14135 Burntwoods Road, Glenwood, MD 21738
(c/o Burntwoods Church)

홈페이지: <http://mdhopechurch.org>

주일설교 영상(youtube): <http://goo.gl/numaZS>

담임목사 (Lead Pastor) : 이웅기 (Woongki Lee) ☎ 443-396-3097 (목사관)

주일예배 순서 Sunday Worship Program

인도(Presider): 이웅기 목사
Pastor Woongki LEE

[* 일어섭니다./Please stand.]

광고 Announcements	Presider 인도자
경배와 찬양 Worship & Praise	All Together 다같이
묵도 Opening Prayer*	Presider 인도자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78번(요한복음 14장)..... 다같이 No. 78: John 14 All Together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Apostles' Creed)..... All Together 다같이
대표기도 Prayer	한명우 안수집사 Deacon Cleb John HAN
찬양 Hymn	35장 큰 영화로신 주(통50).....다같이 Great King of Glory All Together
헌금봉헌 Offertory*	다같이 All Togeth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22~27.....교독/다같이 Response Reading/Together
말씀선포 Message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이웅기 목사 Pastor Woongki LEE
현신의 찬송 Hymn.....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통278).....다같이 In One Fraternal Bond of Love All Together
축도 Benediction*	이웅기 목사 Pastor Woongki LEE



함께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7:7)

-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 성도들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부족한 것 없도록 채워주소서
-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 EM, YM 예배가 부흥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소서
-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소서 — 학업 성취, 취업, 성실한 직장생활, 좋은 친구, 결혼 등등



오늘의 말씀 메모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합니다!

지난 주 설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행 24:1-27)

하나님은 요셉을 종과 죄수의 자리에서 즉시 건져 올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바꾸지 않으신 채, 그 자리 안에서 형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증언 약속이 주어졌지만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 다. 풍랑과 난파, 그리고 사람의 탐욕 때문에 길고도 억울한 지체가 따라 왔습니 다. 그러나 이 모든 곡절을 하나님의 섭리가 이끕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세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그는 전염병 같은 자요, 유대인들을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당파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전 모독이라는 허위까지 없었습니다. 이 고발은 도리어 복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복음은 전염처럼 퍼지고, 삶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나사렛 예수 를 따르는 분명한 정체성을 만듭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삶과 입술이 무엇을 전염시키고 있는가? 바울의 변론은 당당하고 정중했습니다. 그는 폭동의 증거가 없음을 밝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 뵈었다고 증언합니다. 변론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기회를 복음으로 바꿉니다. 먼저 신앙을 간증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도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읽어야 합니다. 이 렌즈를 놓치면 사랑이 사라지고 종교는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과 박해자를 위한 기도가 그리스도의 해석학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의인의 부활만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 곧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영혼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섭니다. 이 소망은 곧 현재의 삶을 붙들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새 마음이 안에서 계속 말합니다. 옛 속성은 그 소리를 눌러 죄의 습관으로 끌고 가지만, 성령은 그 행실을 죽이고 사랑의 길로 세우십니다. 벨릭스는 부패한 권력자였지만,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바울을 즉각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 도에 관해 더 많이 알았고,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권합니다. 그 말이 벨릭스의 폐부를 찌러 두려움을 일으켰지만, 그는 회개 대신 미루기를 선택했습니다. 탐욕은 그의 결정을 잡아깁니다. 복음은 적당한 위안을 주러 오지 않았습니 다. 복음은 지금 당장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도에게 남은 길은 타협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의와 절제를 훈련하며 장차 올 심판을 미리 삽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의 법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로 삽니다. 어떤 이는 그 향기를 맡고도 사망으로 가고, 어떤 이는 생명으로 삽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달렸으나, 향기를 퍼뜨리는 사명은 성도의 몫입니다.

7/19/26 예배순서 담당자		대표기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위원
	장년, EM/유쓰 예배	대면예배 오후 1:30 / 라이브스트리밍 오전 8:00		
	2부 대면예배	홍진수 전도사	교독 / 다같이	TBD